



삽화=신기영

‘동’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자음 차이에 크나큰 자부심

사서는 별떡 일어나 큰 박수... “합창단에서 ‘동동동’만 하면 돼요”

남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상관없었다... 당분간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

처음 본 스티커는 왼쪽에 붙은 ‘책 읽기 자원봉사자 모집’ 스티커였다. 기껏 시선을 돌렸더니 보이는 것이 ‘합창단원 모집’ 흥보스티커라니! 누가 그녀에게 짓궂은 장난이라도 하는 게 틀림없었다.

학창 시절, 그녀는 맑은 목소리와 넓은 음역을 가진 덕에 합창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신뢰감 있는 어투 덕에 학교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적도 있었다. 교사들과 선후배, 친구들에게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이 한 단어밖에 없어진 이후로, 정확히는 그 한 단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이후로, 그녀는 꽤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지금은 자신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목을 가다듬다가도 기껏 꺼낼 수 있는 게 그 단어라는 생각이 갑작사마져 삼킨 게 넉 달째였다. 두 달간의 병가는 질병휴직으로 전환되었고, 월급도 그에 따라 더욱 줄었다. 소비가 줄어들어 따라 생활 반경도 더욱 좁아진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은 여전히 늘지도, 줄지도 않은 한 단어, ‘동’이었다.

괜히 배와 항문에서 힘이 빠졌다. 오랜만에 ‘말’의 부재가 주는 손실을 떠올리게 된 그녀는 불일이고 뭐고 죽 처진 기분으로 화장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몇 칸 안 남은 휴지를 생각할 때, 다음 사람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책을 대출하고 돌아오려는데 결혼 전부터 그녀와 제법 안면이 있는 사서가 아는 책을 해왔다. 사서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만한 후덕한 인상을 갖춘은 물론, 누구와도 대화가 통할 만한 다양한 화제거리를 갖고 있었다. 예전에 그녀도 한 무더기의 사람들 속에 어울려 그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말을 할 기분도 아니었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지금은 할 수 없었다. 어색하게 돌아서려던 그녀를 사서가 다급히 붙잡았다. 그녀는 왜

이러나 싫어서 걸음을 멈추고 어정쩡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활동하는 합창단에서 단원을 구하거든요.”

그는 비장하게 말했다. 이 무슨 뚱뚱자같은 소리인가? 자세히 보니 사서의 얼굴 안에는 뭔가 반가우면서도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화장실에 흥보스티커도 붙였는데, 세상이 험하다 보니 사람들 연락이 통 없더라고요. 무슨 장기매매 광고처럼 보듯 하면서...”

그녀는 ‘우리 아파트에 흥보스티커를 붙이게 도와 달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하며 고개만 대충 주억거렸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말을 했다.

“혹시, 지원하실 생각 있으신지 해서요.”

“동?(네?)”

그녀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가 당황한 나머지 금세 입을 닫았다. 그는 고개를 잠시 가웃했지만, 곧 숨도 쉬지 않고 남은 말을 뱉었다.

“목소리가 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에 대화할 때, 왜 어린 시절 합창단에서 알토로 꽤 오래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노래 몇 소절도 잠깐 들려주시고요.”

그녀는 하마터면 큰 소리로 ‘동’을 외칠 뻔했다.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는 뜻을 담아서.

\* “하아.” 그의 한숨소리가 빈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갖고 있던 펜과 메모장으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 뒤였다. 참으로 오랜만의 고백이었다.

- 저는 지금 ‘동’이라는 말밖에 못 합니다. 생각이나 행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언어적 문제가 심각해서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니다. -

그는 재차 확인했다. 진짜냐고. 합창단이 하기 싫어서, 그런데 거절이 힘들어서 이러는 거면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나는 멀쩡하지만 그냥 노래가 하기 싫다’는 거짓 문장을 쓰는 것이나 ‘나는 하고 싶지만 노래를 할 수 없다.’는 진실한 문장을 쓰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사실 직장을 가지고 나서는 바쁜 와중에 합창이든 춤이든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먹고 자고 쓸 시간도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이라는 문제만 없으면 뭐라도 하고 싶었다. 아니,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차피 남아도는 게 시간이고, 몸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데다, 충분한 휴식 끝에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싶기도 했다.

그는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동이나 동이나 또로롱 같은 건 돼요?”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걸 시도해보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 ‘응’이나 ‘아니’나 ‘안녕?’이나 ‘잘 자’나 ‘밤 먹어’나 ‘밥 차려 놔어.’ 같은 말을 해보라고 한 사람은 있었지만 이런 별 의미 없는 말을 해보라고 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정말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의 모든 힘을 짜내어 힘겹게 한마디를 뱉어보았다.

“또...ㅇ. 피. 오. 응”

그가 작은 한숨을 내뿜었다. 그리고 말했다.

“동만 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

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꽤나 오랜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목젓이, 손과 발이, 배가 미세하게 울렁거렸다. 메스꺼웠지만, 기꺼웠다. 머릿속에서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말이 거둬 떠올랐다. 그것은 아마 꽤나 오랜만에 타인과 긴 대화를 해서 생긴 메아리였을 것이다. 텅 빈 곳에서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울리듯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말(※ 주: 아무나를 대상으로 하는 ‘포인트 적립하세요?’ 따위의 매뉴얼을 읊는 말 말고, 오롯이 그녀를 대상으로 한 진짜 ‘말’을 뜻함)이 비어 있던 그녀의 귓가에는 그 말 한마디가 울리고 또 울려댔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조차 장시간 동안 계속되던 메아리는 이내 ‘해보자.’라는 문장으로 바뀐 채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 울리기 시작했다.

\* 그녀는 그날부터 된소리를 예사소리로 바꾸어 입으로 내뱉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녀의 입은 늘 동그랗게, 약간 벌어져 있었다. 침이 마르고 턱이 아파왔지만 상관없었다.

‘동’에 억인 뒤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녀는 가능한 한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로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동’이라는 한마디가 나오면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동과는 다른 말을 하기 위해. 단 한 음소라도 다른 말을 하기 위해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동! 동! 또오오오응.”

자신과의 싸움이란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누구나 가는 상식적인 길, 허용될 수 있는 길, 혹여 실패해도 핑계 댈 수 있는 길만 걸어왔던 그녀에게는 이런 싸움이 처음이었다. 너무도 하찮아서, 실패하면 바보가 되는 일. 잘 해봐야 본전인 일.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일.

그래서 오히려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싸웠다. 자신의 성대와 싸웠고 자신의 혀와 싸웠고 자신의 입천장과 싸웠다. 앉아서도 싸우고 서서도 싸우고 누워서도 싸웠다. 스스로에게 짜증도 냈다가 달래기도 했다. 다시 화를 냈다가 안쓰러워도 했다. 응원도 했다. 자신과 그렇게 길게 대면한 적이 언제였던가? 웃기는 했던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동”

한 달하고도 보름째였다. 그녀는 제 뺨을 꼬집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미묘한 소

리의 차이.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으니까. 몇 달 동안 듣지 않다가 한 달 보름 동안 질리도록 들어온 자신의 목소리였으니까.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 기뻛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보다 기뻛다. 결혼을 했을 때는 별로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그녀는 말의 높낮이도 바꾸어보고 빠르기도 바꾸어 보았다. 기쁜 마음에, 내친김에 ‘동도로 동동’도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무리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동’만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환하게 웃으며 그녀는 그동안 몸안에 쌓아둔 저주를 전부 토해내듯 큰 소리로 ‘동’을 외쳤다. 그날 그녀의 아파트 동 주민은 알 수 없는 ‘동동동’ 소리에 아파트 벽에 균열이 간 것은 아닌지, 귀신이 씻나락을 까먹는 것은 아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501호에 사는 말없는 새댁이 하루 종일 그렇게 큰 소리, 오직 한소리로 떠들 줄이야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나아가, 그녀는 생각했다.

‘기왕 한 거, 호흡을 좀 길러 볼까?’

발음은 같지만, 새로운 길이의 소리가 열린 창을 넘어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도응. 도오오오오오응. 도오응.”

\*

그게 뭐라고. 사람들은 말했을까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동’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자음 차이에 크나큰 자부심을 얻었다. 마법이라도 부린 기분이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녀가 처음 걸음을 내디뎠을 때 느낀 기분이 이런 것이었을까? 처음 ‘엄마’라는 단어를 발음했을 때 느낀 기분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때 그녀 앞에는 그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오직 그녀만이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했다.

그녀는 빌렸던 책을 돌려주러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사서 앞에 꽃꽂이 섰다. 사서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주 오래 연체된 책을 받아 들고서, 사서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도 자신만만하게 사서를 바라보았다. 곧 사서의 시선에서 묘한 기대감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동~~~동~~~도응~~~.”

사서는 별떡 일어나 큰 박수를 쳐주었다. 한 사람의 기립박수. 성인이 된 이후 그녀가 내딛은 첫 자율적 걸음마에 대한 첫 자율적 응원이었다. 그 장소가 도서관인 것은 심히 문제였지만, 하마터면 그녀는 사서의 손을 맞잡고 함께 통통 튀어 오를 뻔했다.

“합창단에서 마침 아카펠라를 시도해보려고 하거든요. 베이스 기타 같은 역할을 하면 됩니다. ‘동동동’만 하면 돼요. 약보는 읽을 줄 알죠? 모르면 제가 불러드려도 되고요.”

사서는 그녀에게 합창단원의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적여주었다.

그녀는 안다는 뜻으로,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동동’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기 오기 전 혼자만의 법칙을 정했다. ‘네’는 ‘동동’, ‘아니요’는 ‘동’이라고 말하기로. 곧 사서에게는 메모를 전할 생각이었다.

사서는 화장실의 흥보 전단부터 떼려 가야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서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사실 진짜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합창단은 대체 무슨 노래를 하는 것일까? 영어로 된 노래일까? 불어로 된 노래일까? 한국어로 된 노래일까?”라고 뒤늦게 생각이 들긴 했다. 하지만 어차피 ‘동’이라는 발음은 한국적으로 하나 미국적으로 하나 프랑스적으로 하나 ‘동’이었고, 자신이 말을 파트가 생긴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기뻛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신만의 ‘역할’이었다.

\*

연습 장소는 도서관 3층에 딸린 작은 교실이였다. 원래 독서지도사 수업이나 동화 읽기 수업 등을 하는 곳이었었는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므로 보통 수업이 없었다.

그녀가 교실에 들어서자 자유롭게 자신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복장도 다양했고 태도도 다양했다. 당연히 성격도 다양해 보였는데, 소심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범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의 바르고 깐깐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노래를 들어보면 보이는 것과는 또 달랐다. 모두 제각각 다른 노래를 했는데, 강마른 여자가 웅장하고 끈적이는 소리로 스타카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정장을 입은 사서는 한쪽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가며 ‘우우우’ 하는 소몰이형 창법으로 느린 템포의 노래를 불러대고 있었다.

“이제 시작할까요?”

피아노를 멈추고 사서가 말했다. 사서는 그녀를 단원들에게 소개하고는 악보를 나누어주었다. 그녀가 ‘동’과 ‘동’밖에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고개만 꾸벅 숙여 인사했다.

“이게 뭐야. 왜 은통 ‘동동동’이야?”

단원 하나가 말했다. 그리고 보니 가사가 오로지 ‘동’만 쓰여 있었다. 그녀는 악보와 사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사서가 미소를 짓더니 이내 질문한 단원을 향해 대답했다.

“연습용이야. 다들 자기의 음정이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화음이 완성되기까지는 무조건 ‘동동동’으로 갈 거야. 박자 잘 지키고, 멧 내느라 늘어뜨리지 말고, 먼저 여자 단원 연습해봅시다!”

입으로 기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고, 입으로 드럼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으며, 입으로 트럼펫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었다. 낮고 높은 ‘동’이 교실에 울려 퍼졌다. 각기 틀린 음을 교정하고 박자를 맞추는 사이 시간이 금세 흘렀다.

그녀는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동’을 불러댔고, 그 위에 사람들의 ‘동’ 소리가 한 겹, 두 겹 쌓이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사서가 직접 작곡한 노래라는데, 멜로디가 좋아서 그런지 가사가 없어도 참으로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사서는 그녀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저음을 좀 더 연습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번엔 제대로 된 노트라도 읽어질 터였고 아마 음악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 음악에 그녀도 속할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벅찼다.

연습이 끝나갈 무렵, 그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다. 다음 연습 때까지 ‘동’을 연습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쉽게 이루어질 리 없는 일이었지만, 못하리라는 법도 없었다. 이미 한 번의 성공을 이루어낸 그녀였다. 그녀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연습이 끝나고서야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처음인데 힘들지 않았냐고, 낯설지는 않았냐고. 악의 없는 웃음 속에 무언가를 함께 해낸 사람에 대한 동료애가 느껴졌다. 그녀는 웃으며 노래하듯 대답했다.

“동~.”

그녀의 뒤를 따라오던 사서도 말했다.

“동!”

“뭘야, 새로 만든 유행어야?”

사람들이 웃었다. 청량한 웃음이 떠도는 상쾌한 공기 속에서, 그녀도 함께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단 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합창단을 나가야 할지도 몰랐다. 상관 없었다. 합창단을 나가도 노래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오늘 부르는 노래는 그녀가 부를 수많은 노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남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남달라도 상관없었다. 당분간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

다시 한번 그녀가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목뚱하듯, 엄숙하게 첫 음을 짚어 보았다.

“동(童).”

비로소 똥 속에 파묻혔던 아이가 세상 밖에 나온 것 같았다. <끝>